

2025학년도 경찰대학 1차 시험

- 국어 -



응시자 유의사항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십시오.

경 찰 대 학

<http://www.police.ac.kr>

※ 총 12쪽 45문항(2점 35문항, 3점 10문항)입니다. 각 문항의 답을 하나만 고르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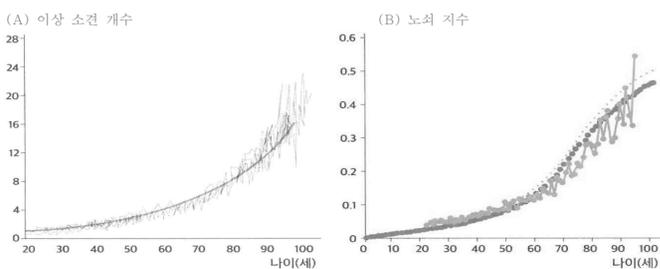
[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노화는 유전자와 환경이 시간의 흐름과 상호작용하여 세포, 조직, 기관, 개체에 일으키는 구조와 기능의 변화를 의미한다. 노화는 일종의 속도 개념으로 생활 습관 등의 요인에 의해 빨라지거나 느려질 수 있다. 이를 각각 '가속노화'와 '역노화'라고 한다. 생물학 연구에서는 유전자 또는 환경을 조절하거나 생물학적 기전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노화의 속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예를 들어 식이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노화 속도를 빠르게 하여 2년 가까이 사육해야 얻을 수 있는 생쥐를 빠르면 6개월 정도 만에 얻을 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 몸에 노화가 쌓이면 개체의 구조와 기능에 변화가 누적되는데, 이 누적 정도를 측정하는 표준화된 방법으로 생물학적 나이가 활용된다. 이러한 생물학적 나이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노쇠 지수라는 것이 있다. 노쇠 지수는 진찰이나 면담을 통해 측정할 수 있는 항목 30가지 이상을 측정하여 정상은 0, 이상은 1로 계산하여 나온 총점수를 구성 항목의 개수로 나눈 값이다. 대신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해야 신뢰할 만하다. 만약 측정 항목 100개 가운데 10개가 정상이 아니라면 노쇠 지수는 0.1이 된다.

측정한 항목 개수가 같다면 사람들의 평균 점수는 나이가 많아질수록 지수적으로 올라간다. 0~1의 범위로 나타나는 노쇠 지수도 결과적으로 전체 인구 집단에서 나이에 비례한다. 이런 원리를 이용하면, 개인의 노쇠 지수를 숫자 나이가 같은 동년배의 평균과 비교해 그 사람이 노화가 더 축적되었는지, 덜 진행되었는지를 꽤 정확히 알 수 있다. 이 노쇠 지수가 일정 정도가 되면 생물학적으로는 '노인의 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노인의 몸을 가지게 되면 질병, 투약, 치료나 스트레스 등 환경 변화에 대해 많은 측면에서 몸의 반응이 이전과는 달라진다.



[그림 1]

[그림 2]

실제로 인체의 이상 소견 개수를 대규모 인구 집단에서 평균으로 나타내면, 생활 습관이나 유전자의 차이를 제외한 시간 자체의 영향을 관찰할 수 있다. 즉 [그림 1]에서처럼 노화와 연관성이 있는 이상 소견의 개수는 나이에 따라 증가하고, [그림 2]와 같이 노쇠 지수도 마찬가지로 인구 집단에서 나이를 추종한다. 대략 60대 초반까지는 아주 천천히 오르다가 그 이후가 되면 곡선의 모양이 급격히 증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노인 인구 집단에서 노화 정도를 평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기능적 항목으로는 걷는 속도, 균형 감각, 인지 기능, 일상생활 수행 능력 등 다양하다. 노화 연구자들은 '움직임과 관련된 신체 기능'이 상당히 간단하면서도 정확한 노화 평가 방법이라고 했다. 걷는 속도와 의자에서 일어나는 데 걸리는 시간 등을 조합해 계산한

생물학적 나이는 인터뷰를 통해 계산한 노쇠 지수나 분자생물학적인 방법으로 측정된 생물학적 나이에 필적하는 정확도를 보이기 때문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구조와 기능 이상이 쌓이고 쌓여서 실제로 큰 문제가 될 정도이면 그 문제는 신체 기능 변화로 관찰된다는 것인데, 움직이는 능력과 같은 신체 기능의 차이만으로도 그 사람의 노화 축적 정도를 어느 정도 알아낼 수 있다는 것이다.

젊은 성인 시기의 노화 속도는 사람마다 차이를 보이며, 중년기에 접어들 때의 생물학적 나이에 영향을 준다. 가속노화를 경험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신체 기능, 인지 기능, 삶의 질 등 모든 면에서 기능이 떨어진다. 현실적으로 질병과 노쇠는 장애를 가져오며,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한 기간은 계속해서 늘어나지 않을 수 없다. 그 결과 개인적, 사회적으로 지속 가능성이 떨어지고 비용이 많이 들게 된다. 따라서 노인의 몸에 이르기 전부터 노화 속도를 늦추는 노력을 통해 질병과 노쇠로 인한 돌봄 요구 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

㉠ 그렇다면 잘 나이가 드는 것은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것일까?

1. 밑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생물학적 나이는 노화가 진행된 정도를 측정하는 표준화된 방법이 될 수 있다.
- ② 사람마다 나타나는 신체 기능의 차이는 분자생물학적인 측정 방법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
- ③ 눈에 보이지 않는 몸의 이상이 누적되어 큰 문제가 발생하면 신체 기능의 변화로는 관찰할 수 없다.
- ④ 개인의 노쇠 지수를 측정한 후 동년배의 평균과 비교하면 그 사람의 상대적인 노화 정도를 알 수 있다.
- ⑤ 기능적 항목을 조합해 계산한 결과는 인터뷰를 통해 계산한 노쇠 지수에 필적하는 간단하면서도 정확한 노화 평가 방법일 수 있다.

2. 밑글에서 활용한 서술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여러 사례를 제시하여 대상의 종류를 구분하고 있다.
- ② 근거 자료를 제시하여 개념의 특성을 분석하고 있다.
- ③ 질문의 방식으로 개념의 정확성에 의문을 드러내고 있다.
- ④ 항목을 나열하여 각각의 특성을 통시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 ⑤ 상반된 양상을 제시하여 두 대상의 공통점을 도출하고 있다.

3. 노쇠 지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30개의 측정 항목 가운데 정상이 24, 이상이 6이면 노쇠 지수는 0.25이다.
- ② 여러 질병과 관련된 변수를 적게 고려할수록 노쇠 지수의 신뢰도가 높아진다.
- ③ 100개 항목을 측정할 때의 노쇠 지수는 구성 항목의 개수를 이상 항목의 개수로 나누면 구할 수 있다.
- ④ 30개 항목을 측정한 사람들의 나이별 이상 소견 개수는 시간의 영향에 따른 노쇠 지수의 증가와 유사한 패턴을 드러낸다.
- ⑤ 30개 항목을 측정하여 산출한 개인별 노쇠 지수가 비슷한 나이의 평균값보다 높으면 노화가 덜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4. 윗글을 바탕으로 ㉠에 대해 답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건강수명을 늘리기 위해서는 운동과 같은 생활 습관의 변화가 유효한 방법이 될 수 있다.
- ② 노쇠나 장애로 인한 불필요한 고통을 예방하기 위해 움직임과 관련된 신체 기능을 향상시켜야 한다.
- ③ 가속노화의 경험이 가져올 결과를 고려하여 생물학적 나이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 ④ 중년기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젊은 성인기에서부터 환경 변화에 대한 몸의 반응 속도를 조절하는 대비가 필요하다.
- ⑤ 건강수명의 손실에 따른 일상생활의 급격한 변화가 오기 전에 돌봄 요구 기간을 앞당겨 지속 가능성을 유지해야 한다.

5. [그림1]과 [그림2]에 초점을 두고 윗글을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이상 소견 개수가 많아질수록 노쇠 지수가 커지는 추세가 지속될 것이다.
- ② 건강수명을 늘려 돌봄 시간을 줄이게 되면 노쇠 지수의 기울기는 이전보다 완만하게 나타날 수 있다.
- ③ 완만하게 증가하던 노쇠 지수는 60세에서 70세로 넘어갈수록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드러낼 것이다.
- ④ 측정된 기능적 항목 개수가 같을 때 이상 소견 개수나 노쇠 지수는 나이대별로 같은 값을 나타내지 않을 것이다.
- ⑤ 개인의 생활 습관이나 유전자를 포함할 때, 나이와 노쇠 지수의 관계를 나타낸 각 개인별 그래프는 같은 곡선을 형성할 것이다.

[6~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낙엽은 폴란드 망명 정부의 지폐
포화(砲火)에 이지러진
도룬 시의 가을 하늘을 생각해 한다.
길은 한 줄기 구겨진 넥타이처럼 풀어져
일광(日光)의 폭포 속으로 사라지고
조그만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새로 두 시의 급행 열차가 들을 달린다.
포플라 나무의 근골(筋骨) 사이로
공장의 지붕은 흰 이빨을 드러내인 채
한 가닥 구부러진 철책(鐵柵)이 바람에 나부끼고
그 위에 셀로판지로 만든 구름이 하나.
자욱한 풀벌레 소리 발길로 차며
호올로 황량(荒涼)한 생각 버릴 곳 없어
허공에 띄우는 돌팔매 하나.
기울어진 풍경의 장막(帳幕) 저쪽에
고독한 반원(半圓)을 긋고 ㉠ 잠기어 간다.

- 김광균, 「추일서정」

(나)

폭포(瀑布)는 곧은 절벽(絶壁)을 무서운 기색도 없이 떨어진다

규정(規定)할 수 없는 물결이
무엇을 향(向)하여 떨어진다든 의미(意味)도 없이
계절(季節)과 주야(晝夜)를 가리지 않고
고매(高邁)한 정신(精神)처럼 설 사이 없이 떨어진다

금잔화(金盞花)도 인가(人家)도 보이지 않는 밤이 되면
폭포(瀑布)는 곧은 소리를 내며 떨어진다] (A)

곧은 소리는 소리이다
곧은 소리는 곧은
소리를 부른다

번개와 같이 떨어지는 물방울은
취(醉)할 순간(瞬間)조차 마음에 주지 않고
나타(懶惰)와 안정(安定)을 뒤집어 놓은 듯이
높이도 폭(幅)도 없이

㉠ 떨어진다

- 김수영, 「폭포」

6.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구체적 심상을 나열하면서, (나)는 추상적 관념을 반복하면서 시상을 형성한다.
- ② (가)는 역동적인 장면을 서술하면서, (나)는 정적인 장면을 묘사하면서 분위기를 조성한다.
- ③ (가), (나) 모두 자연물이 주는 정감을 주제로 형상화하고 있다.
- ④ (가), (나) 모두 상황의 반전을 통해 작품 속 사건의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 ⑤ (가), (나) 모두 비유를 통해 대상의 여러 속성들에 구체성을 부여하고 있다.

7. 제목과 관련지어 (가)를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추일’은 화자가 감각적으로 경험한 대상이다.
- ② ‘추일’은 화자에게 경험적 시간보다는 심리적 상황으로 여겨진다.
- ③ ‘서정’은 ‘추일’에 반발하여 화자가 갖게 된 정서이다.
- ④ ‘서정’은 화자의 행동을 통해 겉으로 드러난다.
- ⑤ ‘추일서정’은 화자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심리 상태로 그려진다.

8. (가)에서 <보기>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구절은?

<보기>
흔들리는 종소리의 동그라미 속으로

- ① 낙엽은 폴란드 망명 정부의 지폐
- ② 조그만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새로 두 시의 급행 열차가 들을 달린다.
- ③ 공장의 지붕은 흰 이빨을 드러내민 채
- ④ 그 위에 셀로판지로 만든 구름이 하나.
- ⑤ 자욱한 풀벌레 소리 발길로 차며

9. (A)를 단서로 (나)의 ‘폭포’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폭포가 지닌 본질은 이해할 수 없다.
- ② 폭포의 현상은 밤이 되어야 드러난다.
- ③ 폭포의 본질은 폭포의 현상에 있지 않다.
- ④ 폭포는 현상과 모순되는 본질을 나타낸 것이다.
- ⑤ 밤이 되면 폭포는 낮과는 다른 본질을 갖게 된다.

10.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은 대상의 핵심적인 속성을 드러낸다.
- ② ㉠과 ㉡은 하강 이미지를 통해 슬픔을 나타낸다.
- ③ ㉠과 ㉡은 단호한 어조로 화자의 의지를 표현한다.
- ④ ㉠은 ㉡과 달리,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가 된다.
- ⑤ ㉡은 ㉠과 달리, 사건의 전후가 상반된 의미를 지닌다.

[11~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두 번째로 내가 건우란 소년에 대해서 관심을 더욱 가지게 된 것은 학기 초 가정 방문을 나가기 전에 그가 써 낸 작품을 읽고부터였다.(나는 가정 방문을 나가기 전 가끔 학생들에게 자기 자신에 관한 글을 써 오라고 하였다.)

(A) 「섬 얘기」란 제목의 그의 글은 결코 미문은 아니었다. 그러나 내용은 끔찍한 것이라 생각했다. 자기가 사는 고장 — 북송아꽃도, 살구꽃도, 아기 진달래도 피지 않는 조마이섬은, 몇 백 년, 아니 몇 천 년 갓은 풍상과 홍수를 겪어 오는 동안에 모래가 밀려서 된 나라 땅인데, 일제 때는 억울하게도 일본 사람의 소유가 되어 있다가 해방 후부터는 어떤 국회의원 명의로 둔갑이 되었는가 하면, 그 뒤는 또 그 조마이섬 앞 강의 매립 허가를 얻은 어떤 다른 유력자의 앞으로 넘어가 있다든가 하는 — 말하자면 선조 때부터 거기에 밭을 붙이고 살아오던 사람들과는 무관하게 소유자가 도깨비처럼 뒤바뀌고 있다는, 섬의 내력을 적은 글이었다.

그저 그런 정도의 얘기를 솔직히 적었을 따름인데, 어딘지 모르게 무엇인가를 저주하는 듯한, 소년의 ㉠ 날카롭고 냉랭한 심사가 글 밑바닥에 짙 깔려 있었다. 나는 나 자신이 갑자기 무슨 고발이라도 당한 심정으로 그 글발을 따로 제쳐서 책상 서랍 속에 넣어 두었다. (중략)

“와 뻥히 보능기요? 내 안주 술 안 취했음데이. 염려 마아소.”

갈밭새 영감은 기름이 절은 수건을 꺼내더니 이마를 한 번 훑치고서

“인자 딴 말은 안 하지요. 언제 또 만날지 모르이칸에 이왕 만넨 집에 저 송아지 빨갱이나 이 갈밭새가 사는 조마이섬 이바구나 좀 하지요.”

그러곤 정신을 가다듬거나 하듯이 앞에 놓인 술잔을 훌쩍 비웠다.

건우 할아버지와 윤춘삼 씨가 들려준 조마이섬 이야기는 언젠가 건우가 써냈던 「섬 얘기」에 몇 가지 기막히는 일화가 붙은 것이었다.

“우리 조마이섬 사람들은 지 땅이 없는 사람들이요. 와 처음부터 없기싸 없었겠소마는 죄다 뺏기고 말았지요. 옛적부터 이 고장 사람들이 젓줄같이 믿어 오던 낙동강 물이 맨들어 준 우리 조마이섬은…….”

건우 할아버지는 처음부터 개탄조로 나왔다.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땅, 자기들 것이라고 믿어 오던 땅이 자기들이 겨우 철 들락말락할 무렵에 별안간 왜놈의 동척 명의로 둔갑을 했더라는 것이었다.

“이완용이란 놈이 ‘을사보호조약’이란 걸 맨들어 낸 뒤라 카터만!”

윤춘삼 씨의 ㉡ 통방울 같은 눈에도 증오의 빛이 이글거리기 시작했다.

(B) 1905년 - 을사년 겨울, 일본 군대의 포위 속에서 강제로 맺어진 ‘을사보호조약’이란 매국 조약을 계기로, 소위 ‘조선 토지사업’이란 것이 전국적으로 실시되던 일, 그리고 이태후인 정미년에 가서는 ‘한국 정부는 시정 개선에 관하여 통감의 지도를 수할 사’란 치욕적인 조목으로 시작된 ‘한일신협약’에 따라, 더욱 그 사업을 강행하고 역둔토(驛屯土)의 대부분과 삼림 원야(森林原野)들을 모조리 국유로 편입시키는 등 교묘한 구실과 방법으로써 농민들로부터 빼앗은 뒤, 다시 불하하는 형식으로 동척과 일인 수중에 옮겨 놓던 그 해괴망측한 처사들이 문득 내 머릿속에서도 떠올랐다.

“죽일 놈들.”

건우 할아버지는 그렇게 해서 다시 국회 의원, 다음은 하천 부지의 매립 허가를 얻은 유력자…… 이런 식으로 소유자가 둔갑되어 간 사연들을 죽 들먹거리더니.

“이 꼴이 되고 보니 선조 때부터 독을 맨들고 물과 싸워 가며 살아온 우리들은 대관절 우찌 되는지요?”

그의 ㉠ 꼭꼭한 목소리에는, 건우가 지각을 하고 꾸중을 듣던 날 ‘나릿배 통학생입니다.’ 하던 때의, 그 무엇인가를 ㉡ 저주하듯한 감정이 꿈틀거리고 있는 것 같았다. **얼마나 그들의 땅에 대한 원한이 컸던가를 가히 짐작할 수 있었다.**

- 김정환, 「모래톱 이야기」

11.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건우’는 ‘조마이섬’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했다.
- ② ‘윤춘삼’은 ‘건우 할아버지’의 생각에 동조하며 분노했다.
- ③ ‘건우 할아버지’는 부당한 권력의 횡포에 대해 비판했다.
- ④ ‘나’는 ‘건우’의 글에서 ‘나’를 고발하려는 의도를 읽고 걱정했다.
- ⑤ ‘조마이섬 사람들’은 ‘유력자’의 행위로 인해 억울하게 살아왔다.

12.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대화 장면을 통해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지역 방언을 사용하여 이야기에 현장감을 부여하고 있다.
- ③ 인물이 처한 현재 상황을 과거와 연결지어 보여주고 있다.
- ④ 역사적 사건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여 이야기의 사실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⑤ 공간적 배경을 상세하게 묘사하여 장소의 외적 특징을 구체화하고 있다.

13.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은 외양 묘사에 내포된 인물의 행동을 암시하고 있다.
- ② ㉠과 ㉡에서 드러나는 상황에 대한 인물의 태도는 상반되어 있다.
- ③ ㉠은 ㉡과 달리 인물의 심리를 서술하여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 ④ ㉠과 ㉡은 인물의 외적 모습과 마음 상태의 괴리를 강조하고 있다.
- ⑤ ㉡은 ㉠에서 인물이 느낀 것과 같은 감정이 외적으로 발현되고 있다.

14. (A)와 (B)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나’가 직접적으로 겪은 경험의 기록을, (B)는 ‘건우’가 간접적으로 경험한 사실의 기억을 전달하고 있다.
- ② (A)는 특정한 글 속에 적혀 있는 사건에, (B)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과거의 사건에 초점을 두고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
- ③ (A)는 (B)와 달리 시대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이야기의 사실성을 높이고 있다.
- ④ (B)는 (A)와 달리 비유적인 표현을 활용하여 사건에 대한 독자의 정서적 공감을 유도하고 있다.
- ⑤ (A)와 (B)는 모두 사건의 내용을 인과적으로 서술하여 이야기의 경과를 일목요연하게 제시하고 있다.

15.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1인칭 소설에서 서술자로서의 ‘나’는 인물로서 극화된 모습으로 드러난다. 이때 ‘나’는 이야기의 주인공과 일치할 때도 있고 구분될 때도 있다. 후자의 경우 ‘나’는 이야기 안에 있으면서 사건을 관찰하고 보고하는 목격자 역할을 한다. 그런데 서술자로서의 ‘나’가 목격자임에도 이야기에 개입을 하여 서사 전개를 이끌어간다고 한다면, 전지적 시점과 유사한 편집자적 논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 ① ‘내가 건우란 소년에 대해서 관심을 더욱 가지게 된 것’에서 주인공의 위치에서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서술자로서의 ‘나’를 확인할 수 있겠군.
- ② ‘갈밭새 영감은 기름이 절은 수건을 꺼내더니 이마를 한 번 훔치고서’에서 서술자가 이야기 안에 있으면서 사건을 관찰하고 보고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겠군.
- ③ ‘건우 할아버지와 윤춘삼 씨가 들려준 조마이섬 이야기’에서 서술자는 이야기 안의 극화된 인물임을 짐작할 수 있겠군.
- ④ ‘이런 식으로 소유자가 둔갑되어 간 사연들을 죽 들먹거리더니’에서 서술자가 대화의 목격자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겠군.
- ⑤ ‘얼마나 그들의 땅에 대한 원한이 컸던가를 가히 짐작할 수 있었다’에서 인물로서 극화된 서술자가 편집자적 논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16~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회학자 알박스는 무엇이 사회 집단을 결속시키는가를 연구하다 기억이 중요한 역할을 함을 통찰하였다. 기억은 개인이 사건이나 경험을 간직하거나 회상하는 것을 말한다. 흔히 기억을 개인적 차원의 의식작용으로 간주한다. 알박스가 보기에 기억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형성되며 사회 집단의 성질과 분리될 수 없다. 이에 그는 ‘집단 기억’이란 개념을 주창하였다.

㉠ 알박스가 제안한 집단 기억은 사회적으로 형성된 집단 차원의 기억을 말한다. 집단 기억은 구성원들이 상징적 기호를 공유하고 사회적 상호작용에 참여하여 의미를 획득할 때 형성된다. 이때 사회 집단의 구성원들은 사건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기념물, 건축물, 제의 등을 공유한다. 그리고 사건에 대한 기억을 말이나 글로 소통한다. 집단 기억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의식 속에 존재하지만, 구성원들은 소속 집단의 관점에서 사건을 이해하고 관련된 기억을 공유한다. 그리고 이를 후속 세대에 전승한다.

그렇다면 집단 기억은 어떻게 전승되는가? 집단 기억의 전승에는 공간과 시간 그리고 사회 집단과의 연관 등이 관여한다. 사회 집단은 공간을 통해 기억을 의미화하면서 널리 확산시키고 오랫동안 보전한다. 사회 집단이 특정한 사건과 관련된 장소나 건축물을 설정하면 구성원들은 그 공간을 대면하면서 집단 기억을 회상할 수 있다. 공간이 사건을 의미화하지만, 그것이 기억으로 작용하려면 시간과의 접촉이 이루어져야 한다. 낮과 밤, 계절 변화 등 자연적 시간은 기억이라는 의식작용에 필수적이다. 그런데 집단 기억의 형성과 전승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사회적 시간이다. 절기, 기념일, 축제일, 정치적·사회적 사건과 관련된 날 등 사회적 시간은 구성원들에게 집단 기억을 환기하고 다시금 널리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이렇듯 공간과 시간에서 형성된 집단 기억은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상징적 기호를 통해 지속적으로 공유되고 소통된다. 개인의 기억은 그의 죽음과 동시에 소멸되지만, 집단 기억은 소통을 통해 후속 세대에까지 전승된다.

집단 기억은 구성원들이 소속 집단에 대한 귀속감을 갖고 공동체 집단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 구성원들은 소속 집단의 주요 사건에 대한 집단 기억을 공유하고 그로부터 자신 혹은 그 집단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된다. 예를 들어 자신의 뿌리가 되는 가문의 집단 기억을 공유함으로써 자신이 어떠한 집단의 구성원인지를 파악하고 가문의 후손으로서 정체성을 정립할 수 있다.

집단 기억은 사회 집단을 둘러싼 여러 요인들에 의해 변화되기도 한다. 문제적인 사건이 발생하면, 사회 집단 구성원들은 그 사건에 대한 기억을 교섭한다. 이 과정에서 기억들 간의 경합이 발생한다. 특정한 기억은 사회적으로 의미를 획득하여 집단 기억으로 자리 잡고, 다른 기억은 개인적 차원에 국한되거나 망각된다. 이러한 과정에 권력 구조나 정치적 여건, 경제적 조건, 지리적 환경 등의 요인들이 영향을 미친다.

(A) 사회 집단의 권력 구조가 집단 기억의 형성 및 전승 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문제적인 사건을 두고 기억이 경합하는 과정에서 권력을 가진 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집단 기억이 형성되도록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동시에 자신에게 불리한 기억은 배제하고 억압한다. 이런 경우, 집단 기억은 해당 사회 집단의 권력적 역학관계에 따라 결정되므로 신뢰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억은 집단 구성원들이 형성한 기억들과 충돌하며, 구성원들은 때로 결집하여 권력에 대응하며 권력자의 의도와 다른 집단 기억을 지키고 확산시키기도 한다.

16. 윗글의 설명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개념을 정의한 후,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② 여러 개념들 간의 관계를 제시한 후, 그 인과 관계를 분석하고 있다.
- ③ 개념에 관한 여러 이론들을 제시한 후, 각 이론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있다.
- ④ 개념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살펴본 후, 그 의의 및 한계점을 밝히고 있다.
- ⑤ 개념의 문제점을 제시한 후, 이를 보완하기 위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17. 윗글을 읽고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집단 기억의 의미
- ② 집단 기억의 종류
- ③ 집단 기억의 형성
- ④ 집단 기억의 전승
- ⑤ 집단 기억의 영향

18. (A)를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집단 기억의 안정성은 사회 집단의 권력관계와 독립적으로 유지된다.
- ② 권력자와 달리 집단 구성원들은 집단 기억이 형성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 ③ 집단 기억은 권력관계에 영향을 받으므로 이를 공유하는 것은 금지해야 한다.
- ④ 집단 기억이 전승될 때 사회적 조건 중 권력 구조가 작용하므로 신뢰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 ⑤ 권력자와 집단 구성원 간에 일방적 권력관계가 형성되는 경우, 그 사회의 집단 기억은 형성될 수 없다.

19. <보기>의 ‘아스만’의 관점에서 ㉠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기> —

아스만은 알박스의 집단 기억 개념을 받아들여 이를 문화적 기억으로 발전시킨다. 그는 문화적 기억이 문화적 재현 형식을 통해 과거에 대한 의미를 구체화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기억이 사회적 상황에 따라 집단의 관념 속에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관념이 물질적이고 상징적인 문화적 형식으로 보존되고 전승될 때 신념과 인식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아스만은 집단 기억을 소통적 기억과 문화적 기억으로 구분하고, 소통적 기억이 일상의 상호 행위를 통해 나타나는 비교적 가까운 시대적 지평에 의존하는데 비해, 문화적 기억은 문화적 상징을 통해 다수의 구성원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소통된다고 하였다.

- ① 집단 기억은 문화적 기억보다 소통적 기억에 근거할 때 구성원의 집단에 대한 신념을 높일 수 있다.
- ② 집단 내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개인의 의식 속에 형성되는 집단 기억은 문화적 재현 형식이 된다.
- ③ 개인이 자신의 기억을 문학 작품으로 형상화하면 그 자체로 문화적 재현 형식으로서 집단 기억이 된다.
- ④ 집단이 함께 기억하는 역사적 사실이 존재한다면 그들의 집단 기억은 신념이나 공동의 인식으로 기능하게 된다.
- ⑤ 집단 기억이 말을 통해 전달되며 개인의 의식 속에서 공유된다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달라지거나 잊혀질 수 있다.

20.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기> —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나치가 아우슈비츠에서 유대인들을 대량 학살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나치의 항복으로 전쟁이 끝난 후, 유대인들은 생존자들의 증언을 기록하고 확산하여 나치의 만행을 규탄하였다. 독일인들은 유대인을 대량 학살한 가해자로서의 기억과 패전 과정에서 폭력을 당한 피해자로서의 기억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했다. 독일인 중에는 나치와 관련된 건물을 없애 가해의 증거를 지우려 하는 이들도 있었다. 1979년 유네스코가 아우슈비츠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면서 아우슈비츠는 인류의 어두운 역사를 성찰하는 공간으로 남게 되었다.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아우슈비츠를 방문해 죽은 이들을 추모하고 민족 절멸의 위기를 기억한다.

- ① 유대인의 집단 기억에서 아우슈비츠는 전쟁과 반인도적 행위를 상징하는 기호로서 공유되었겠군.
- ② 아우슈비츠라는 상징적 기호는 독일인들과 유대인들의 집단 기억 속에서 동일한 의미를 가지겠군.
- ③ 유대인이 아우슈비츠에 관한 집단 기억을 전승하는 것은 그들의 공동체 의식 형성에 영향을 주었겠군.
- ④ 일부 독일인이 나치와 관련된 건물을 없애려 한 것은 불리한 집단 기억을 제거하기 위한 행동으로 볼 수 있겠군.
- ⑤ 독일인들은 전쟁에 대한 집단 기억을 형성하면서 가해자로서 기억과 피해자로서 기억이 경합하는 혼란을 경험했겠군.

[21~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실제 상황에서 목격할 일이 많지는 않겠지만,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피의자를 체포한 경찰이 ‘미란다 원칙의 고지’를 하는 장면이 곧잘 나온다. 이제는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는 이 ‘미란다 원칙’은 언제 어떠한 과정을 통해 확립된 것일까?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무엇일까?

어네스트 미란다는 어린 시절을 불우한 환경에서 여러 범죄를 저지르며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는 20대의 히스패닉계 청년이다. 어느 날 아침에 그의 집에 두 명의 경찰관이 찾아온다. 열흘 전 썸 애리조나 주 사막에서는 납치 및 강간 사건이 발생했고, 경찰은 그를 용의자로 지목한 상태였다. 경찰관은 그에게 신분 확인을 요청한 후 경찰서에 나와 진술해 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그는 순순히 동의하며 경찰과 동행했다.

미란다와 관련하여 여러 정황이 의심스러웠지만 핵심적인 증거가 될 만한 것은 없었다. 범죄 피해자나 목격자가 진술한 범인과 용의자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인 범인 식별 절차에서 피해자는 범인을 알아보지 못했다. 경찰로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었다. 절차를 마치고 경찰관이 조사실에 다시 왔을 때, 그곳에서 혼자 기다리던 미란다가 불안해하며 결과가 어떤지를 물었다. 경찰관은 짐짓 그에게 불리한 상황이 생겼음을 암시했다. 미란다는 자신이 범인으로 지목되었을 것으로 짐작하고는 자백하겠다고 밝혔다. 조사실에는 변호사나 목격자가 없었고, 대화 내용은 녹음되지 않았다. 미란다가 신문하면서 경찰관은 일정한 양식의 서류를 내밀었다. 거기에는 자의에 의해 협박이나 강요, 이익의 약속 없이 진술했음을 선서하며, 피의자 자신의 권리를 알고 진술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이해한다고 써 있었다. 미란다는 거기에 진술 내용을 자세히 적고 자신의 이름과 사인을 했다. 자백한 지 얼마 안 되어 미란다는 다른 강도 및 강간, 강간 미수 사건들을 추가로 자백했다.

애리조나 주 마리코파 구법원에서 재판이 열렸다. 대개 이런 재판은 하루만에 마치고 빠른 결론에 이르곤 했다. ㉠ 국선 변호인 무어는 증인으로 나선 경찰관에게서 조사 중 **진술의 임의성**을 확인하기 위한 고지를 하지 않았다는 증언을 이끌어내고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이 재판의 검사는 최후 변론을 통해 경찰관의 훌륭한 자질에 비추어볼 때 그들이 피고인의 권리를 빼앗은 적이 없고 피고에게 그러한 권리를 고지하는 것이 불필요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경찰의 조사 과정에 다시 의문을 제기했지만, 배심원들은 검사의 말에 공감한 것으로 보였다. 평의를 마친 후 그들은 만장일치로 유죄 판결하였으며, 판사는 장기형을 선고했다.

그 후 이 재판은 주 대법원에 상고되었다. 자술서의 임의 진술을 문제 삼은 것이었다. ㉢ 1965년 애리조나 주 대법원은 미란다가 조사 과정에서 권리 고지를 받았고 변호인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변호인의 도움받을 권리를 거절당한 사실도 없다는 이유로 그에 대한 유죄 판결을 다시금 확인했다.

1966년까지 연방대법원은 자백의 허용성을 검토할 때 적정절차 조항에 근거를 둔 임의성 기준에 따랐다. ‘임의성’이 있는지를 ‘사정의 전체’를 살펴서 판단한다는 것이다. 이 임의성에 대한 주장과 입증은 피의자와 경찰에게 맡겨졌다. 이는 본질적으로 수사 기관에 더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이었다. 1965년 11월 연방대법원은 미란다 판결을 심리하기 위한 변론을 열기로 결정했다. ㉣ 1966년 1월 28일 연방대법원 상고심에서 피고를 변호한 존 플린은 구두 변론을 담당하며 다음 두 가지에 초점을 두었다.

첫째, 대부분의 미국 시민이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변호사의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해 두고자 하였다. 둘째, 권리 고지를 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언제 권리 고지를 하는지가 중요함을 확실히 밝혀두고자 하였다. 플린은 미란다가 조사를 받으면서 자백을 받기 전에 묵비권과 변호인 선임권, 변호인과 상의할 권리를 고지받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그는 피의자 단계에서부터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기 위해서는 수정헌법 제5조의 권리를 확대하여 당사자 지위를 갖출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변론했다. 이 말은 미란다가 조사를 받았을 때 그가 경찰과 대립하는 당사자 지위에 있었으므로 그 시점에 이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었어야 한다는 뜻이었다.

이 주장은 매우 대담한 것이었다. 이전까지 법원은 시민의 권리 보장을 위해 수정헌법 제6조의 보호 아래 재판 전 변호인 선임권을 부여해 왔으며 형편이 안 되는 피고인을 위해 국선 변호인을 두게 하였다. 그런데 플린은 이 권리가 피의자의 체포, 조사 과정에서부터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수정헌법 제5조에 근거하여 주장했던 것이다. **이때가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㉔ 1966년 7월 13일 열린 상고 허가심에서 연방대법원은 ‘미란다 원칙’을 채택하고 헌법적 근거를 찾음에 있어 수정헌법 제6조가 아닌 수정헌법 제5조를 선택했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았다. “구속된 사람은 반드시 신문 전에 묵비권이 있음과 진술한 내용이 법정에서 불리하게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고지해야 한다. 또한 변호인 선임권이 있고, 조사받는 동안 변호인과 상의할 수 있으며, 변호인을 선임할 형편이 안 되면 국가가 변호인을 선임해준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해야 한다. …… 질문하기 전에 묵비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질문을 중단해야 한다. 피의자가 원한다면 변호인이 참여하기까지 조사를 중단해야 한다. …… 구속된 상태에서는 이러한 특권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음과 변호인 선임권이 있다는 사실을 환기시키고 그 후에 진술하도록 해야 한다.” 플린이 그 역사적 순간에 밝혔던 ‘미란다 원칙의 고지’의 내용이였다.

21. 밑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미란다는 불우한 가정 환경 속에서 성장하며 여러 건의 범죄 행위로 처벌을 받았다.
- ② 경찰이 범죄 피의자로 미란단을 지목해 찾아왔을 때, 그는 자의에 의해 경찰서로 동행하였다.
- ③ 경찰은 미란다에게 자술서를 쓰게 했으며, 미란다는 자의에 의해 자술한다는 자술서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였다.
- ④ 애리조나 주 대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권리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변호인의 이의제기를 수용하였다.
- ⑤ 연방대법원은 기존에 인용해 왔던 수정헌법 제6조 대신 수정헌법 제5조에 근거하여 피의자 진술의 임의성을 재평가하였다.

22. 밑글에 따를 때, ‘미란다 사건’을 다룬 연방대법원 재판의 핵심적인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하급심 판사의 형량 산정은 적정했는가
- ② 피고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충분히 받았는가
- ③ 증인은 범인의 범죄 사실을 명확히 증언했는가
- ④ 피의자는 당사자로서 법적 권리를 보장받았는가
- ⑤ 대법원 판결은 수정헌법의 정신을 위배하였는가

23. 진술의 임의성과 관련하여 미란다 사건에 대해 각 주체가 판단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 : 피의자가 자의에 따라 진술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지 않았기에 진술의 임의성이 침해되었다.
- ② ㉡ : 경찰관은 강요하지 않았고 피의자는 자의로 진술했으므로 진술의 임의성이 침해되지 않았다.
- ③ ㉢ : 피고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요구하지 않았고 진술서에 기록된 피의자 권리를 확인한 후 서명했으므로 진술의 임의성이 있다.
- ④ ㉣ : 경찰은 피의자를 조사하기 전 피의자 권리를 고지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으므로 진술의 임의성을 침해했다.
- ⑤ ㉤ : 경찰은 적정절차 조항을 지켜 피의자를 조사하지 않았고 사정의 전체를 고려했을 때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거부한 것이므로 진술의 임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24. 밑글의 맥락으로 볼 때, 이때가 역사적인 순간이었다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형사 피고인의 권리가 최초로 법령에 규정된 순간이었다.
- ② 적법하지 않은 수사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진 순간이었다.
- ③ 법원이 피고측 변호인의 주장을 전폭적으로 수용한 순간이었다.
- ④ 피의자가 보장받아야 할 법적 권리가 처음으로 법원에서 공론화된 순간이었다.
- ⑤ 불우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법적 조력의 중요성을 사람들이 인식하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25. 밑글에 따라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기> —

우리 헌법은 묵비권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수사 실무 차원에서 보면, 피의자의 묵비권이라는 권리와 이율배반 관계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피의자의 자백이 의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 ① 현실이 법을 따르는 경우는 거의 없다.
- ② 많은 피의자들이 자신의 진술이 가져올 법적 판단의 결과나 파장을 잘 알지 못한다.
- ③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피의자들은 자백이 자신에게 더 유리할 것이라는 착각을 한다.
- ④ 묵비권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에게 주어지지만, 피의자의 대부분은 범죄자이다.
- ⑤ 피의자는 법정에서 재판을 받기 전까지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백을 선택한다.

[26~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극심한 우울증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가 자신의 기분이 훨씬 나아졌고 더 이상 나쁜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하룻밤 귀가를 원할 때, 그 환자가 진실을 말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 환자가 병원의 감독을 벗어나기 위해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할 수도 있지 않은가?

메리(가명)는 마흔 살의 여성으로 입원하기 전 세 차례나 자살을 시도했고 거의 성공할 뻔했다. 그 후 그녀는 병원에 입원했고, 나중에 더 이상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며 주말 외박을 신청했다. 심리학자 폴 에크먼은 한 직원의 보고 덕분에 그녀가 외박 신청 인터뷰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고백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외박 며칠 전 그녀는 병원을 나가면 자해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털어놓았던 것이다. 그녀의 입원 중 인터뷰 영상을 처음 봤을 때, 에크먼은 그녀가 자신의 감정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어떠한 증거도 보지 못했다. 그녀는 자주 웃었고 긍정적으로 말했으며 쾌활하게 보였다. 그녀를 담당했던 담당 의사는 실제로 그녀를 믿었다.

에크먼과 그의 공동연구자인 윌리 프리센은 다중 고속 모션 프로젝터를 활용하여 그녀의 표정과 몸짓 하나하나를 프레임별로 검토했다. 인터뷰 중 어느 순간, 그녀가 멈칫하면서 얼굴에 엄청난 고통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이 보였다. 의사가 메리에게 그녀의 장래 계획에 대해 물었을 때였다. 24장의 프레임 중 단 두 장뿐이었고 1/12초 사이에 지나갔으며 금방 웃음으로 덮였다. 그들은 그 장면을 반복해 보았고, 그것이 무엇을 드러내는지는 확인할 수 있었다. 정지된 프레임에서 그녀의 진정한 감정은 매우 분명했지만, 곧 의도적으로 숨겨졌다. 그들은 필름에서 아주 재빨리 지나가는 고뇌의 표정을 두 번 더 찾아냈다. 이처럼 사람들의 진짜 느낌을 비언어적으로 '누설'하는, 아주 잠깐 동안의 얼굴 움직임들을 그들은 미표정(微表情)이라고 명명했다.

그 후 20여 년 동안 에크먼과 프리센은 일부러 숨긴 감정과 억압된 감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더 밝힐 수 있었다. 미표정은 메리의 경우와 같이 의도적인 은폐일 때나, 또는 자신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알지 못할 때, 즉 감정이 억압된 상태일 때 발생할 수 있다. 어떤 미표정이 이 둘 중 하나를 가리키는지는 구분이 안 된다. 어떤 감정의 상태인지에 대한 판정이 가능하려면 미표정이 발생하는 맥락을 분석해야 하고 종종 더 많은 질문도 던져야 한다. 여기서 맥락이란, 대개는 어떤 대화 상황이나 특성을 가리키는지를 뜻하는 대화의 맥락을 뜻하며, 그 외에도 두 대화 당사자 간 관계의 내력, 미표정이 나타나는 순간의 대화 순서, 그리고 미표정에 드러나는 감정과 발화 간의 일치, 이를테면 피평가자가 말하는 내용이나 목소리, 몸짓, 자세 등과 일치 등이 포함된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미표정을 발견하지 못하고 실제 감정을 알아채지 못하거나 거짓말에 속게 되는 것일까? 이에 대해 에크먼은 대화 도중 미표정이 발생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미표정에 주의를 기울이는 대신, 단어들과 목소리의 톤, 그리고 몸짓에 관심을 쏟기 때문에 아주 잠깐 동안의 얼굴 움직임을 식별하는 데 실패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대화 중 대개 다음 순간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할지에 대한 생각으로 종종 주의를 빼앗겨서 미표정을 놓치기도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는 미표정을 분간하기 위한 반복적 학습과 그 판단의 적절성에 대한 즉각적인 피드백, 그리고

가장 흔히 혼동하는 감정표현, 이를테면 분노와 혐오, 두려움과 놀람 등을 시각적으로 대조하는 훈련을 해 봄으로써 표정 속에 감추어진 감정을 탐지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다고 판단했다. 만약 미표정을 확인할 수 있다면, 누군가의 억압된 감정도 알 수 있겠거니와 그가 일부러 숨긴 감정과 이를 통해 은폐하려 했던 진실에도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거짓말을 할 때마다 확실한 신호가 나타나는 것은 피노키오박에 없다.” 에크먼은 거짓말을 할 때 나타나는 여러 단서들을 살피면서, 순간적인 느낌에 관한 거짓말은 감정 숨기기와 표정 꾸미기 중 하나로 이루어지며 그 중 표정을 꾸미는 것이 더 쉽다고 말한다. 특히 대부분의 사회적 상황에서 불쾌한 느낌을 은폐하고 긍정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웃음은 가장 흔히 사용되는 가면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는 이럴 경우에도 표정 속에 나타나는 자연스럽지 않은 비대칭이나 감정 기반 근육 운동의 부재(예컨대 웃을 때 눈둘레근의 외측 부분이 움직이지 않는 것 같은), 표정의 시점 등을 확인함으로써 꾸며낸 표정을 식별할 수 있다고 말한다.

26. 윗글의 주제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메리는 왜 거짓말을 했을까
- ② 거짓말에 담긴 감정은 무엇인가
- ③ 거짓말은 어떻게 가려낼 수 있는가
- ④ 거짓말은 인간관계에서 왜 중요한가
- ⑤ 성공한 거짓말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27.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말은 생각과 일치하지 않을 때가 있다.
- ② 사람은 내면의 모든 감정을 자각하지는 못한다.
- ③ 꾸며낸 표정은 의도적으로 감정을 숨길 수 있다.
- ④ 숨기려 하지 않는 한, 감정은 표정을 통해 드러난다.
- ⑤ 감정을 숨기는 것이 꾸며낸 표정을 보이는 것보다 쉽다.

28. 윗글을 읽고 독자가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정밀한 기계 장치를 사용하지 않으면 미표정을 분간할 수 없겠군.
- ② 미표정을 보면, 그 사람이 그런 감정을 갖게 된 이유와 배경을 알 수 있겠군.
- ③ 미표정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되면 현실의 문제에서 실용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겠군.
- ④ 어떤 사람이 보인 미표정을 다른 사람에게서 발견하게 된다면 그들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뜻이겠군.
- ⑤ 대화 중 상대방의 말이 진실인지 알려면, 매 순간 주의를 집중하여 그 다음에 어떤 말을 할지 예측해야겠군.

29. <보기>의 내용과 윗글 간의 논리적 관계를 가장 적절하게 나타낸 것은? [3점]

<보기>

모든 거짓말이나 거짓된 행동 단서들이 감정적인 것은 아니다. 단서는 사고와 감정 양쪽에서 발생할 수 있다. 사람들이 자신이 했거나 계획하고 있는 일에 대해 설명할 때, 그 설명이 거짓일 가능성을 알려주는 가장 명백한 인지적 단서는 설명 속에 존재하는 모순이다. 즉각적인 반응이 요구될 때 나타나는 망설임 또한 명백하고 유익한 단서가 된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속이는 것과는 무관한 무언가를 뜻할 수도 있으므로, 거짓의 판명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정보들을 더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① <보기>는 윗글과 대립적 관점에서 미표정의 기능이 제한적인 이유를 증명한다.
- ② <보기>는 윗글에 대한 보완적 관점에서 거짓말을 판단할 수 있게 하는 또 다른 단서를 추가한다.
- ③ <보기>는 윗글과 동일한 관점에서 사람의 행동 특성이 거짓말을 드러내는 유일한 단서라는 데 동의한다.
- ④ <보기>는 윗글에 대한 비판적 관점에서 사람의 표정에서 그의 감정 상태를 읽어낼 수 있다는 견해를 반박한다.
- ⑤ <보기>는 윗글을 포괄하는 관점에서 감정적 단서나 인지적 단서로는 거짓말에 익숙한 사람을 변별할 수 없음을 주장한다.

30. 표정 과 미표정(微表情)의 의미 관계를 보이는 것은?

- ① 개척 : 미개척 ② 생물 : 미생물
- ③ 결정 : 미결정 ④ 소년 : 미소년
- ⑤ 완성 : 미완성

[31~3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옛그제 젊었더니 하마 어이 다 늙거니
 소년 행락(小年行樂) 생각하니 일러도 속절없다
 늙어서야 서러운 말 하자 하니 목이 멘다
 부생모육(父生母育) 신고(辛苦)하여 이내 몸 길러 낼 제
 공후 배필(公侯配匹)은 못 바라도 군자호구(君子好逑) 원하더니
 삼생의 원업이요 월하의 연분으로
 장안 유협(長安遊俠) 경박자(輕薄子)를 꿈같이 만나 있어
당시의 마음 쓰기 살얼음 디디는 듯
 삼오 이팔(三五二八) 겨우 지나 천연 여질(天然麗質) 절로 이니
 이 얼굴 이 태도로 백 년 기약하였더니
 연광(年光)이 훌쩍 지나 조물이 시샘하여
 봄바람과 가을 물이 배울에 북 지나듯
 설빈 화안(雪鬢花顏) 어디 가고 면목가증(面目可憎) 되었구나
내 얼굴을 내 보거니 어느 임이 날 사랑할까
 스스로 참괴(慚愧)하니 누구를 원망하라
 삼삼오오(三三五五) 야유원(冶遊園)의 새 사람이 났단 말인가
 꽃 피고 날 저물 제 정처(定處) 없이 나가 있어
 백마 금편(白馬金鞭)으로 어디어디 머무르고
 원근을 모르거니 소식이야 더욱 알라

인연을 끊었어도 생각이야 없을쏘나
 얼굴을 못 보거든 그림기나 말았으면
 열두 때 길기도 길구나 서른 날 지리하다
 옥창(玉窓)에 심은 매화 몇 번이나 피고 졌는고
 겨울밤 차고 찬 제 자취는 섞어 치니
 여름날 길고 길 제 곳은비는 무슨 일이고
 삼춘 화류(三春花柳) 호시절의 경물(景物)이 시름없다
 가을 달 방에 들고 실솔(蟋蟀)이 상에 울 제
 긴 한숨 지는 눈물 속절없이 생각만 많다
 아마도 모진 목숨 죽기도 어렵올사
 도로혀 풀쳐 헤니 이리하여 어이하리
 청등을 돌려 놓고 녹기금(綠綺琴) 빗겨 안아
 벽련화(碧蓮花) 한 곡조를 시름 좇아 셋거 타니
 소상야우(瀟湘夜雨)의 댕소리 섯도는 듯
 화표천년(華表千年)의 별학이 우니는 듯
 옥수(玉手)의 타는 수단 옛 소리 있다마는
 부용장(芙蓉帳) 적막하니 뉘 귀에 들리소니
간장(肝腸)이 구곡(九曲)되어 굽이굽이 끊쳤어라
 차라리 잠을 들어 꿈에나 보려 하니
 바람에 지는 잎과 풀 속에 우는 벌레
 무슨 일 원수로서 잠조차 깨우는가
 천상의 견우직녀 은하수 막혔어도
 칠월 칠석 일 년 일도 실기(失期)치 않거든
 우리 임 가신 후는 무슨 약수(弱水) 가렸관대
 오거나 가거나 소식조차 그쳤는고
 난간에 빗겨 서서 임 가신 데 바라보니
 풀 끝에 아침 이슬은 맺혀 있고 저녁 구름 지나갈 제
 죽림 푸른 곳에 새소리 더욱 싫다
 세상에 서러운 사람 수없다 하려니와
 박명(薄命)한 홍안(紅顏)이야 나 같은 이 또 있을까
아마도 이 임의 탓으로 살 동 말 동 하여라

- 허난설헌, 「규원가(閨怨歌)」

(나)

임 그리워하는 꿈이 **귀뚜라미**의 낮이 되어
 지나간 가을밤에 임의 방에 들어갔다
 날 잊고 깊이 든 잠을 깨워 볼까 하노라

- 박효관

(다)

① 연못에 비 뿌리고 버드나무에 안개 끼었는데
 사공은 어디 가고 **빈 배**만 매어 있는고
 석양에 짝 잃은 갈매기는 오락가락 하는구나

- 조현

31.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자신의 감정을 감추고 있고, (나)는 감정을 격하게 드러내고 있다.
- ② (가)는 과거를 후회하는 마음을, (다)는 임과의 만남에 대한 기대를 표현하고 있다.
- ③ (나)는 임을 그리워하는 심사를, (다)는 외로운 심사를 표출하고 있다.
- ④ (나)와 (다)는 현재 상황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가)~(다) 모두 임과 이별하는 상황을 회상하며 원망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32. (가)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화자는 임의 소식을 듣고 안도하고 있다.
- ② 화자는 꿈에서라도 임을 만나고 싶어 한다.
- ③ 화자는 서러운 마음으로 거문고를 연주하고 있다.
- ④ 화자의 부모는 화자가 좋은 배필을 만나기를 원했다.
- ⑤ 화자는 세월이 흘러 변해버린 자신의 용모를 안타까워한다.

33. **귀뚜라미**와 **빈 배**의 역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화자의 감정을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 ② 시간의 흐름을 가시적으로 나타낸다.
- ③ 화자가 소망하는 이상향을 상징한다.
- ④ 공간적 배경을 시각적으로 묘사한다.
- ⑤ 시상의 전환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34. <보기>를 참고할 때 (가)에서 ㉠과 성격이 다른 것은?

<보기>

시적 상황은 화자가 처한 문제 상황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 ① 겨울밤 차고 찬 제 자취는 섞어 치니
- ② 여름날 길고 길 제 곶은비는 무슨 일이고
- ③ 삼춘 화류 호시절의 경물이 시름없다
- ④ 가을 달 방에 들고 실솔이 상에 울 제
- ⑤ 죽림 푸른 곳에 새소리 더욱 싫다

35.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조선은 봉건적 규범 아래 여성에게 가해지는 제약이 많던 시대였다. 당대 여성들은 출가외인(出嫁外人)이라 하여 친정으로부터 격리된 삶을 살아가야 했고, 삼종지도(三從之道)라 하여 평생 아버지, 남편, 아들을 따르며 살아야 했다. 남편이 아내를 내쫓을 수 있는 악행을 칠거지악(七去之惡)이라 하였는데, 아내가 시부모에게 불순하거나 남편의 외도를 시샘하는 것, 심지어 말이 많은 것도 해당되었다. <규원가>는 그러한 시대적 배경 아래 창작된 규방가사로, 화자는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억압받으며 살아가면서도 자신의 처지나 상황을 직접적으로 말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낸다.

- ① ‘당시의 마음 쓰기 살얼음 디디는 듯’에서 시집 온 후 남편을 모시며 조심스럽게 살았던 화자의 삶을 엿볼 수 있군.
- ② ‘내 얼굴을 내 보거나 어느 임이 날 사랑할까’에서 남편이 자신을 찾지 않는 것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화자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군.
- ③ ‘삼삼오오 야유원의 새 사람이 났단 말인가’에서 남편의 행실이 바르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화자의 생각을 엿볼 수 있군.
- ④ ‘간장이 구곡되어 굽이굽이 끊쳤어라’에서 봉건적 규범 속에 살아가는 화자의 한이 얼마나 큰지 느낄 수 있군.
- ⑤ ‘아마도 이 임의 탓으로 살 동 말 동 하여라’에서 남편이 자신을 찾지 않는 현실을 적극적으로 비판하는 화자의 태도를 엿볼 수 있군.

[36~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빅데이터란 크고 복잡해 일반 컴퓨터로는 처리할 수 없는 많은 양의 데이터를 말한다. 데이터는 단순히 수집하는 것뿐만 아니라 분석이 수반돼야 한다. 빅데이터는 큰 용량, 빠른 속도, 다양성을 갖는 정보 자산으로 통찰력, 의사결정, 프로세스 자동화 등 혁신적인 처리 방식이 필요하다.

빅데이터 활용에는 데이터 마이닝이 필수적이다. 데이터 마이닝이란 빅데이터 안에서 체계적이고 자동적인 규칙이나 패턴을 찾아내는 작업으로, 통계학에서 쓰이는 다양한 기법을 활용한다. 데이터 마이닝이 다루는 데이터베이스는 크게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로 구분할 수 있다. 정형 데이터는 결제 금액, 회계 등과 같이 구조화된 데이터를 일컫는다. 비정형 데이터는 소셜 미디어의 텍스트, 이미지, 영상처럼 형태와 구조가 정형화되지 않은 복잡한 데이터를 뜻한다. 대표적인 비정형 데이터로는 온라인 리뷰, 소셜 미디어 포스팅을 꼽을 수 있다. 과거에는 데이터 마이닝이 대부분 정형 데이터 위주였다면, 지금은 비정형 데이터의 비중이 월등히 높다.

비정형 데이터는 형태와 구조가 다양하여 기존의 통계로는 분석이 쉽지 않다. 최근에는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 텍스트 마이닝이 부각되고 있다. 텍스트 데이터를 다룰 때 가장 어려운 점은 바로 구조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컴퓨터가 데이터를 분석하려면 그 데이터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데, 언어에 따라 의미나 문법 규칙이 전부 다르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언어를 이해하고 처리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모든 텍스트는 특정 언어로 만들어지는 만큼, 언어의 문장구조를 분석하고 단어의 의미를 이해해야 비로소 데이터에서 가치를 찾아낼 수 있다. 이러한 작업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 텍스트 마이닝이다.

하루에 생산되는 데이터의 양은 정말 어마어마하다. 특히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 미디어에는 수십억 개 이상의 콘텐츠가 공유되고 있다. 유튜브와 틱톡 등 동영상 기반 서비스는 짧게는 몇 초에서 길게는 수십 시간 분량의 영상이 끊임없이 생겨나고 스트리밍된다. 최근 이러한 데이터는 영상, 음악, 이미지 등 다양한 형태로 그 수가 급격히 늘어났는데, 사용자가 특정한 목적으로 ㉠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것을 ㉡ 원시 데이터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원시 데이터 세트를 기본 형식으로 저장하는 곳이 데이터 레이크이다.

이렇게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려면 컴퓨터의 성능은 물론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 그 시간과 비용을 줄이거나 좀 더 효율적으로 정보와 지식을 활용하기 위해, 데이터 마이닝은 많은 양의 데이터에서 인간이 찾을 수 없는 패턴까지 추출해 스마트 데이터를 찾아낸다. 빅데이터가 가공 처리 전 원재료라면, 데이터 마이닝은 이를 정제하는 작업이다. 정제 및 가공 처리된 데이터를 ㉢ 스마트 데이터라고 한다. 이렇게 분석과 가공된 스마트 데이터는 개인과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활용된다.

36. 밑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데이터 마이닝은 데이터에서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의 종류이다.
- ② 형태가 구조화된 데이터보다 형태가 일정하지 않은 데이터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 ③ 텍스트 데이터는 언어 규칙에 일정한 패턴이 있어서 정보를 구조화하는 데 용이하다.
- ④ 원시 데이터는 다양한 데이터가 특정한 목적에 맞게 처리되지 않은 상태의 것을 의미한다.
- ⑤ 빅데이터를 실제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데이터에서 목적에 맞는 규칙이나 패턴을 찾아내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37.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효율적인 정보와 지식을 활용하기 위해 패턴을 추출한 결과를 축적한 것이다.
- ② ㉡은 유튜브와 틱톡 등 동영상 기반 서비스에서 생성된 영상 자료를 그대로 보관한다.
- ③ ㉠은 ㉡과 달리 인공지능 서비스로 생성되는 데이터를 가공 처리한 정보를 기본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 ④ ㉡은 ㉠과 달리 수십억 개 이상의 콘텐츠를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 처리한 결과를 저장한다.
- ⑤ ㉠과 ㉡은 모두 영상, 음악, 이미지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빅데이터를 원재료 상태로 구성한 것이다.

38.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기> —

(가) 킬로바이트 단위에 불과했던 텍스트 데이터의 양이 이미지와 영상 등이 포함된 데이터로 바뀌며 메가바이트와 기가바이트 수준이 되었다.

(나) 데이터 수집은 컴퓨터, 네트워크, 스마트폰 등에서 이루어지며 이러한 데이터 흐름은 단절되지 않고 연속적으로 신속히 진행된다.

(다) 환자가 병원에서 검사를 받을 때 컴퓨터에 수치 정보가 입력되며 또한 검사 기기에서 생성된 생체 정보, 유전자 정보, 질병 정보, 영상 정보 등 다양한 데이터가 저장된다.

- ① (가)는 데이터가 생성되는 속도가 빠르다는 빅데이터 처리 속도의 변화 양상을 분석한 것이다.
- ② (나)는 정형 데이터를 비롯해 비정형 데이터까지 다양하게 생성되는 빅데이터의 종류를 분류한 것이다.
- ③ (다)는 데이터 환경의 변화로 정형 데이터를 비롯해 비정형 데이터까지 생성되는 예를 들어 설명한 것이다.
- ④ (가)와 (나)는 모두 빅데이터를 통해 체계적인 규칙과 방법을 적용하는 분석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논증한 것이다.
- ⑤ (나)와 (다)는 모두 데이터 처리 방식이 발전함에 따라 빅데이터의 양이 증가된 상황을 구체화하여 제시한 것이다.

39. <보기>의 내용을 밑글에 추가하려고 할 때, 글쓴이가 한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기> —

아침에 일어나 스마트폰 알람을 보니 야채, 고기가 문 앞에 배송되었다. ‘주문하지도 않은 식재료가 왜 왔지?’ 하는 생각에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 텅 비어 있었다. 평소 출근 시간보다 늦어 택시를 부르려고 음성 인식 스피커에 말을 걸자 내가 입을 열기도 전에 ‘택시를 호출할까요?’라고 물었다. 점심식사 시간이 다가오자 주변 식당 정보가 스마트폰 알람으로 전송되어 가장 덜 붐비는 식당에서 식사하고 돌아왔다. 오후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정리하는데 인공지능이 지난 수십 년간의 데이터를 토대로 향후 5년 치 예측 데이터를 이미 내놨다. 지금까지 인공지능이 예측한 데이터는 오차 없이 맞았다. 물론 갑작스러운 사고나 기후 변화로 인한 변수는 아직 완벽히 반영되는 것 같지는 않다. 그래도 빅데이터 분석의 정확도가 워낙 높아져 생산과 재고로 인한 손실은 크게 줄었다.

- ① 빅데이터가 인간의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사례를 들어 보여주는 것이 좋겠다.
- ② 개인에게 제공되는 스마트 데이터가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일상적 경험을 토대로 제시할 필요가 있겠다.
- ③ 불확실하거나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비하는 빅데이터의 한계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좋겠다.
- ④ 스마트 데이터의 변수에 따른 손실 규모가 과거에 비해 점점 커지는 이유를 상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겠다.
- ⑤ 예측 데이터를 활용한 음성 인식 스피커가 인간의 마음을 어디까지 읽어낼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면 좋겠다.

40. 문맥상 ㉠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경찰은 그를 무혐의 처리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 ② 당신은 이 일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③ 업무를 제게 맡겨 주시면 완벽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④ 부패 방지를 위해 시신을 알코올로 처리하여 안치했다.
- ⑤ 이 일을 장난처럼 처리하는 당신의 태도가 못마땅하다.

[41~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홍모 부부는 선녀가 품에 들어오는 태몽을 꾸고 딸 계월을 낳는다. 계월은 난으로 인해 부모와 헤어진 후 평국으로 개명하고 남장한다. 이후 평국은 장원 급제하고 대원수가 되어 난을 평정한다. 천자는 평국이 여자임을 알고도 신임하여 보국과 혼인시켰으나 보국은 평국을 소홀히 대한다. 그러던 중 반란이 일어난다.

(A) 천자가 깜짝 놀라 조정의 모든 신하를 불러 의논했다. 우승상 정영태가 말했다.
 “이 도적은 좌승상 평국을 보내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빨리 평국을 부르십시오.”
 천자가 듣고 곰곰이 생각하다가 말했다.
 “평국이 예전에는 밖에 나와 일을 했기에 불렀지만, 지금은 규중에 머물러 있는 여자인지라 차마 불러낼 수 없는데, 어찌 전쟁터로 보내겠는가?”
 이에 모든 신하가 말했다.
 “평국이 비록 아녀자로 집 안에 있으나, 조야에 이름이 있고 작록을 거두지 않았는데, 어찌 아녀자라 하여 거리끼겠습니까?”
 천자가 마지못해 급히 평국을 불렀다.

평국은 집 안에서 날마다 시녀들을 데리고 장기와 바둑을 두며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 이때 사관이 와서 천자가 부르는 명령을 전하자, 평국이 깜짝 놀라 곧바로 여자 옷을 벗고 조복으로 갈아입은 뒤 사관을 따라가 천자 앞에 엎드렸다. 천자가 매우 기뻐하며 말했다.

“그대가 집 안에 머문 후로 오랫동안 보지 못해 밤낮으로 보고 싶었는데, 이제 그대를 보니 기쁘기 한이 없도다. 짐이 덕이 없어 지금 오나라와 초나라 양국이 반역하여, 호주 북쪽 지방을 쳐서 항복을 받고 남관을 열어젖히고 황성을 침범하려 한다고 하니, 그대는 나아가 나라와 조정을 편안하게 지키도록 하라.”

평국이 엎드려 아뢰었다.

“제가 외람되게 폐하를 속이고 높은 관직에 올라 영화롭게 지내기가 황공했는데,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처럼 사랑하시니, 제가 비록 어리석으나 힘을 다해 성은을 만분의 일이나마 갚고자 합니다. 폐하는 근심하지 마옵소서.”

천자가 매우 기뻐하며 즉시 천병만마를 뽑아 모으도록 했다. 삼남원에 진을 치고 홍 원수가 친히 붓을 잡아 보국에게 명령을 내렸다.

“적병이 급하니 중군장은 급히 대령하여 군령을 어기지 마라.”

보국이 이 명령을 보고 분함을 이기지 못해 부모께 여쭙었다.

“계월이 또 저를 중군장으로 부리려 하니,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공이 말했다.

㉠ “전날 내가 너에게 뭐라고 이르더냐? 계월을 괘시하다가 이런 일을 당하니, 어찌 그르다 하겠느냐? 나랏일이 매우 중하니,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

여공은 보국에게 나가라고 재촉했다. 보국은 할 수 없이 바빠 갑주를 갖추고 진중에 나아가 홍 원수 앞에 엎드리니, 홍 원수

가 분부했다.

“만일 명령을 거역하는 자가 있으면, 군법을 시행할 것이다.”

(B) 보국이 두려워하며 처소로 돌아와 명령 내리기를 기다렸다. 홍 원수가 장수들에게 각각의 임무를 정해 주고 가을날 구월 갑자일에 행군을 시작했다. 십일월 초하룻날 남관에 당도해 삼일 동안 군사를 머물게 하고, 즉시 떠나 오일에 천속산을 지나 영경루에 다다랐다. 적병이 평원광야에 진을 치고 철통같이 지키고 있었다.

홍 원수가 적진 가까이 진을 치고 명령했다.

“명령을 어기는 자가 있으면, 세워 두고 벨 것이다.”

호령이 서릿발 같아, 모든 장수와 군졸들이 두려워하며 어찌할 줄 몰라 했다. 보국 또한 매우 조심했다.

이튿날 홍 원수가 보국에게 분부했다.

“오늘은 중군장이 나가 싸워라.”

보국이 명령에 순종해 말에 올라 삼척장검을 들고, 적진을 향해 외쳤다.

“나는 명나라 중군장 보국이다. 대원수의 명을 받아 너희 머리를 베려 하니, 너희는 빨리 나와 칼을 받아라.”

적장 운평이 이 소리를 듣고 크게 화를 내며 말을 몰고 나와 싸웠다.

세 번도 채 겨루지 않아 보국의 칼이 빛나더니, 순간 운평의 머리가 말 아래로 떨어졌다. 적장 운경이 운평의 죽음을 보고 크게 화를 내며 말을 몰아 달려들자, 보국이 승리의 기세가 등등해 창검을 높이 들고 서로 싸웠다. 두어 차례 겨루지도 못해, 보국이 칼을 날려 칼을 들고 있는 운경의 팔을 치니, 운경이 미처 손을 놀리지 못하고, 칼을 든 채 말 아래로 떨어졌다.

보국은 운경의 머리를 베어 본진으로 돌아왔다. 그때 적장 구덕지가 크게 노해 장검을 높이 들고 말을 몰아 큰 소리로 고함치며 달려들고, 난데없이 적병들이 사방에서 달려들었다. 보국이 매우 다급해 피하려 했으나, 한순간에 적들이 함성을 지르며 보국을 천여 겹이나 에워쌌다.

사세가 위급하자 보국이 하늘을 우러러 탄식했다. 이때 홍 원수가 장대에서 북을 치다가 보국의 위급함을 보고 재빨리 말을 몰아, 장검을 높이 들고 좌충우돌하여 적진을 헤치고 들어가, 구덕지의 머리를 베어 들고 보국을 구해 낸 후, 몸을 날려 적진 속을 헤집고 다녔다. 동에 번쩍하더니 어느새 서쪽에 있는 적장을 베고, 남쪽으로 가는 듯하더니 어느새 북쪽에 있는 장수를 베고, 좌충우돌하여 적장 오십여 명과 군사 천여 명을 한칼로 쓸어버리고 본진으로 돌아왔다.

41. 윗글의 내용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반란이 일어나기 전에 평국은 나랏일을 한 적이 없다.
- ② 평국이 군령을 몇 번 반복하자 비로소 장수들과 군졸들이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 ③ 평국의 부하가 된 것에 불만을 가진 보국이 처소에만 머물러 진군이 더디게 이루어졌다.
- ④ 보국이 평국의 군령을 어기고 적진으로 뛰어들어 상황이 악화되었다.
- ⑤ 평국이 위기에 빠진 보국을 구하러 적진으로 가서 활약하고 돌아오면서 상황이 일단락되었다.

42.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화 당사자는 함께 문제 해결의 방법을 찾아낸다.
- ② 대화 당사자는 각자의 견해를 상대방에게 강요하고 있다.
- ③ 대화 당사자는 누구도 대화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 ④ 대화 당사자는 모두 동등한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다.
- ⑤ 대화 당사자는 대상 인물의 능력에 대해 견해 차이를 보인다.

43.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거와 현재의 교차를 통해 환상성을 높이고 있다.
- ② 공간의 이동을 통해 인물의 성장 과정을 그리고 있다.
- ③ 공간적 배경 묘사를 통해 인물이 처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 ④ 사건의 흐름을 요약적으로 서술하여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 ⑤ 주인공에 대한 일화를 나열하여 주인공의 인물됨을 드러내고 있다.

44. 밑줄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주인공은 자신이 여자라 전쟁에서 원수의 직분을 수행하기에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여겼겠군.
- ② 수많은 적군을 한칼에 쓸어버리는 모습에서 주인공은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군.
- ③ 주인공이 나라의 위기 상황에서 아내로서의 역할보다 신하로서의 책무를 더 우선시하였음을 알 수 있군.
- ④ 주인공이 여자라는 이유로 결혼 후 사회적 활동을 제약받긴 하지만 그 능력에 대해서는 인정을 받고 있군.
- ⑤ 주인공은 더 높은 관직을 얻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용서해 준 천자의 성은에 보답하기 위해 전쟁에 나서기로 했군.

45. ㉠의 상황에 어울리는 속담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개미 구멍이 독을 무너뜨린다.
- ② 남의 눈에 눈물 내면 제 눈에는 피가 난다.
- ③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 ④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 ⑤ 산이 커야 골이 깊다.

※ 확인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 했는지 확인하십시오.